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 “골드만삭스 사태 - 국내금융시장 영향 제한적”

□ 국내·외 금융시장은 증권거래위원회(SEC)의 골드만삭스 기소에 따라 미·유럽 증시가 하락하고, 미 국채·달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증시 하락, 외국인 매도세, 환율 상승 등 골드만삭스 기소사건에 대해 영향을 받음.

- 이에 금융당국이 '09년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골드만삭스 관련 유가증권 보유분을 파악한 결과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 잔액은 국내 금융권 전체의 해외유가증권 보유잔액(190억 4,000만 달러)의 1.8%에 해당하는 3.5억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함.
- 특히 보유잔액 중 금번 골드만삭스의 이번 기소사건과 직접 관련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(CDO)*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임.

* 자산유동화 증권과 신용파생상품이 합성된 금융상품으로 자산보유자가 기초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(SPC)에 양도하지 않고, 신용파생계약을 통해 신용위험만을 분리하여 이전함.

□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(SPC)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합성 CDO 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우리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 동일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임.

- 선진국의 경우 합성 CDO가 재무리스크 관리 및 투자수단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나, 국내에서는 자산유동화법상 합성 CDO 발행에 대한 근거가 없어 합성 CDO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함.
- 따라서 향후 국제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및 우리 금융회사의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임.

□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*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임.

* '10.3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, 신용위험 등에 대한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제도임.

(美,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.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외, 4/20)